



#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 성경 토크아보기

## 아멘과 에우나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시18:20)라는 다윗의 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굵직굵직한 죄를 여러 번 지은 사람이, 자기 손이 깨끗하다니!

그러나 다윗의 이 말은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큰' 복은 자기 마음속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찬양됩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 '에우나'는 '아멘'과 같은 어근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전 인격적인 동의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멘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동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아멘'에서, 어떤 사람과 깊이 공감하며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에우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공감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공감하십니다. 성도의 그 작은 신실함에 하나님은 크고 강한 신실함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까지 신실하시다면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신실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작은 순종과 믿음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하고자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항상 아름답게 살지는 못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는 마음이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부활



김성진 담임목사

## 들어가는 말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의 죽으심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다고 기록하는 십자가 현장에도, 마가복음은 여인들만 있었던 것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로 밝히고 있고(막15:40,41), 이 이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16장 1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 부활의 첫 증인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일몰 전까지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일몰 몇 분 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세 시간 정도 안에 급하게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요19:39)을 시신에 바른 후에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세 여인이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향품은 시신이 썩는 것을 막고 냄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용품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떠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으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받아서 어느 무덤에 안치하였는지도 확인하였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하니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으며 그곳에 예수는 계시지 않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그 청년을 통해서 듣습니다! 마가의 기록에서 이 여인들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은 증인으로서의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나타나셨다면, 혹은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 속도 좀 시원하고 예수님의 복음도 더 빠르게 전파되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십자

가의 마지막 증인과 부활의 첫 증인을 이 여인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작은 목소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현장에  
함께했던 세 여인,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 찾아와  
예수님의 부활 소식 가장 먼저 들어

여러 번 부활 소식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믿음 없음과 완악함으로 꾸지람 받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 아닌  
간절한 믿음 가진 자들에 의해 시작

부활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어 ”

##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부활

그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전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셔도 안 되고 부활하시어도 안 된다고 꾸짖듯 책망하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을 고위직에 앉혀달라는 말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유념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실제로 접하면서도 절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 소식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나 목자가 부활하여서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갈릴리에서 보자고 당부하셨습니다(막14:27-28).

그런데 주님의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갈릴리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서 직접 그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막 16:1-14)

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에 채워져야 할 믿음은 없고, 마음에서 비워져야 할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꾸지람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는 왜 이토록 냉철하게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회복 이야기(요20)를 적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처럼 제자들의 회복 이야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집중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심지어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사건으로서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믿기 어려운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포된 부활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 여인들 vs 제자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었는데,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과연 제자들과 여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빈 무덤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고, 주님의 무덤에도 찾아오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여인은 담대히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음을 통곡하며 안타까워했고, 이른 새벽 주님의 장례를 위해 무덤을 찾아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걸어간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막8:34)는 말씀 앞에 자기 뒤통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부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방문지(訪問地)였고 갈릴리는 일상지(日常地)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복음은 이렇듯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진리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빈 무덤을 떠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됩니다.

## 맺음말

마가복음은 신학적 논쟁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팩트를 전하고 도전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걸어가야 할 제자도를 사실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여인과 제자들을 냉철하게 비교함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며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던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부활입니다. 지금도 교리를 정교하게 세워서 능숙하게 설명해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갈릴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부활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예배사역위원회Q&A/류요한 목사님

# 예배의 감격을 삶의 감동으로



**Q. 예배사역위원회 담당교역자로 섬기게 된 소회 부탁드립니다**

A.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 잡힌 예배를 통해 은혜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삶의 감동으로 실천하는 성도님들께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날마다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린교회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Q. 기존의 '5센터 21위원회' 조직에서의 '예배위원회'가 5개의 부서로 세분화되었네요. 예배사역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예배사역위원회는 5개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성경열 장로  
담당교역자: 류요한 목사  
안내부: 성경열 장로, 류요한 목사  
예식부: 박희준 장로, 류요한 목사  
기도사역부: 이병미 권사, 조희숙 전도사  
예배음악부: 박정화 권사, 김다영 전도사  
직장인예배부: 신준영 집사, 정대환 목사, 이두호 강도사

**Q. 기존에 없던 '예배음악부'가 생기게 된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예배음악부는 말씀, 기도, 찬양이 균형 잡힌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의 방향성에 따라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된 부서입니다. 예배 안에서 찬양팀, 예배 반주, 성가대 등 음악으로 섬기는 섬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예배음악부의 사역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 성도가 예배와 음악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통해 균형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 안에서 예배 음악으로 섬기는 분들이 예배와 음악에 대한 바른 신앙과 신학을 겸비하여,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공예배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도록 목양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2일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배음악

세미나'는 이런 목적에 따라 실시한 첫 행사입니다. 같은 목적이지만 특별히 예배 현장에서 찬양과 관련한 섬김을 담당하는 실제 섬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음악학교'가 개설되어서, 3월과 4월에 한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배음악부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의 감격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Q. 기존의 기도사역위원회가 '기도사역부'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기도사역위원회의 사역에서 특별히 변화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A. 기도사역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요섬김기도, 릴레이기도, 강단기도하는 분들을 독려하고 섬기는 부서입니다. 먼저, 수요섬김기도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가정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교회 내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릴레이기도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주일 동안 한 번, 한 시간을 정해서 교회 기도실 및 본관 1층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섬김입니다. 릴레이로 진행되는 섬김으로 전 교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도실에 준비된 기도집을 활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기도를 섬기는 지체들은 하반기에 있을 '기도학교'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단기도 섬김은 주일예배와 강단을 위해 기도하는 섬김으로 주일과 토요일, 그리고 온라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께서 강단기도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담임목사님 부임 이후에 더 보강된 섬김입니다. 매주 강단기도를 통해 온전한 예배가 드러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뿐 아니라 말씀에 은혜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섬김입니다.

일반적인 사역 외에 기도사역부의 특별 사역으로는 지난 3월19일에 유상섭 목사님을 강사로 한 기도세미나가 있었고, 10월 중순에는 릴레이기도 섬김을 독려하기 위해 '5기 기도학교(토요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역과 비교해서 특별히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강단기도에 좀 더 집중하여 교회 시무권사님들이 상·하반기에 강단기도에 헌신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별

히 남성들이 기도 섬김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반기 기도학교는 남성들 중심(여성 포함)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신설된 '직장인정오예배부'가 눈에 띄네요. 이 예배가 생기게 된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교회 주변으로 많은 회사와 직장인이 있기에, 지역사회를 향한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주변 직장인들을 위한 마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고, 목요일직장인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직장인예배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배자들의 모임이며, 바쁜 직장생활에서 쉼표를 찍고 은혜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영육의 회복으로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 예배TF에서 여러 교회의 직장인예배를 탐방하면서 열린교회만의 특별한 목요일직장인예배를 기획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기도회를 가지며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예배를 4월 3일(목)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짧고 소중한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사역이기에, 1시간 안에 감격이 있는 예배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요일직장인예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소중한 사역을 위하여 여러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찬양팀, 안내팀, 식사팀으로 섬겨주실 성도님과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Q.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린교회 예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저와 예배사역위원회 섬김이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추천도서

###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폴 밀러/생명의말씀사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두가 알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잃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잊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고 지속하는 주체이자 동력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기도'는 교회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역의 중심이어야 한다. ...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교회에 대해 가르칠 때 기도회를 인도했다. 그는 편지를 써서 기도한다. 에베소서 1-3장의 45

퍼센트가 바울의 기도이다. 기도와 설교가 거의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이 교회(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기도의 중심에 둔다. 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데, 그분께 다다른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다. (책중에서)

주바라봄기도회 기간에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읽으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란히 또다시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2025

## 주바라봄 성경읽기



범위 여호수아~말라기  
기간 3월 31일(월)~12월 31일(수)  
문의 광혜정 전도사



예배음악세미나 후기

# 예배음악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배우다



신혜선 장년4교구  
90141@daum.net

지속적인 모든 교회 섬김에는 수많은 고민과 나의 씨름, 현장에서의 땀 흘리는 수고와 더불어 치열한 전쟁들이 있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교훈으로 자신을 새롭게 진보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것을, 섬기는 자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다.

지난 교구 찬양팀 현장에서 섬기며 수많은 고민과 씨름을 해 온 난, 오랫동안 언젠가 이루어질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찬양과 찬양팀, 음악, 교회, 예배, 사람들 등 여러 관계망 속의 수많은 얽힘과 의문투성이, 질문들이 세미나 한 큐에 매듭이 스르르 풀렸다! 땅속에 숨겨 둔 보화를 발견했다는 말씀처럼, 내 인생을 드러서 보화를 산 듯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잔치의 클라이맥스에서 느끼는 듯한 기쁨이 선물처럼 주어졌고, 이것은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았다. 10여 년간 주님을 섬겨온 것에 대해 이론과 실제 양면으로 정리시켜주신 이번 세미나가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

2월 22일(토) 예배음악세미나가 본관3층 예배실에서 있었다. 강사이신 권용준 교수님의 이력이 CCM 가수(밴드)도 하셨던 현장 경험과 신학적 연구의 결과가 함께 있어서 실제적이고 신뢰가 갔다. 이론으로 말씀하신 앞부분 강의는 거의 모든 찬양 관련 세미나, 설교 가운데 공통적으로 말씀되는 부분이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사와 음악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시며, 예배에 악기 사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배 목록에 찬송시도 있었음을 환기시켜 주심으로 강의가 출발됐다.

결혼예비학교 후기

# 결혼에 대한 더 큰 소망을 품게 되다

저는 일찍이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올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결혼예비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언젠가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면 꼭 함께 듣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후, 우리는 함께 커플 큐티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또한 가정을 사랑하시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예비학교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며 나는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한편, 앞으로 더 깊이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예비학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던 세상의 결혼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적 결혼관, 재정, 성, 소통의 방식 등 사랑의 원리와 실천적인 가르침을 배우며, 서로 다른 두 남녀가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찬양의 위치, 정체성 등을 확인시켜 주시고 신학적 기반 위에 풀어주신 1세기의 예배 이야기가 재미졌다. 칼빈과 청교도의 찬양에 대한 악기 사용 제한, 가사 목상 시 산만해짐을 우려하는 등의 관점과 부분적인 한계를 피타고라스의 철학부터 어거스틴 등 헬라 철학에 기반한 교회 중세음악의 흐름을 고찰해주심으로 그동안 교회 안에서 감각적인 음악을 죄악된 것으로 치부(置簿)했던 점을 알려 주셨다.



영화에 음악이 더해짐으로 대사 전달뿐 아니라 창발(創發)적 의미와 새로운 감각이 생성되는 것을 직접 키보드 연주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접근도 하셨다. 흔히 실수하고 오용되던 은사주의의 예들을 통해 한국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도 관심받아왔던 은사주의의 찬양들, 예배 형식들의 위험성과 잘못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심으로 음악의 과도한 제한과 과도한 사용 간의 균형 있는 시각도 전해 주셨다.

개인적으로는 청교도적인 예배를 지향하고 그들의 경건한 삶을 추구해왔던 과거의 열린교회의 찬양에 대한 이

해와 한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안에 우물 안 개구리식 시각이 있었다면, 그 시각을 객관적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찬양과 음악과의 관계와 범위에 있어서도 음악이 가진 장점, 다양함, 찬양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을, 재즈 장르의 예를 시연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셨다.

전쟁에 비유한 찬양 예배, 취향적인 면에서 분류한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 문화적 약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대중문화로서의 교회음악의 방향, 사랑의 관점에서 어떤 찬양을 해야 하는지의 방향성 제시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찬양에 대한 식견과,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성경적인 관점은 신학자로서의 깊은 연구와 사색뿐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찬양 연주자로 섬겼던 경력, 헌신에서 나온 실제 경험이 어우러져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탁월한 강의였음에 탄복한다!

강의 결말로 제시하신 전통과 회중의 상황을 고려한, 미적 탁월성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찬양의 방향성 제시는 현실에서 찬양 예배자들이 직면하는 난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하신 강사님의 깊은 하나님 경외의심과 찬양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도 울린 탁월한 명강의였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 음악, 찬양 예배를 기대하며 교수님의 강의를 이 분야에서 널리 전파되길 희망한다.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예배음악 세미나도 기대해 본다. 모든 성도가 잠재적인 섬김자이기에 함께 듣고 준비하면 좋겠다. 현장에서의 치열한 고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



최요한 청년부  
chu-yh@naver.com

배웠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성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르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성이 단순한 금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올바르게 배우고, 바른 태도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양질의 강의뿐만 아니라, 매주 진행된 과제를 통해 나누었던 대화의 시간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부 십계명'을 작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에서 사람과의 계명보다 하나님과의 계명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돌아보며,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고민했습니다.

가정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하며 신앙의 기초를 다져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자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계명을 작성했습니다. 이 부부십계명은 우리의 가정이 신앙 위에 세워졌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열린교회 가정사역부와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혼예비학교를 온전히 수료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해 인도해 주신 선배 부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먼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며, 결혼에 대한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가꿔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배 부부들에게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또 다른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언젠가 선배 남편으로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가정을 세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헌신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청년부목양1국수련회 후기

#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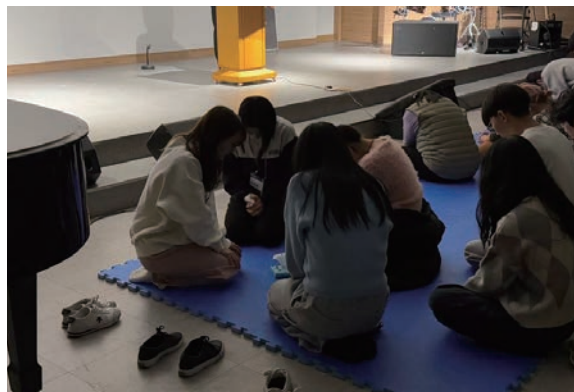


박채린 청년부  
yellowbag06@naver.com

청년부 1국끼리 겨울 수련회에 가는 것은 처음이라 1국의 마음모아기도회를 통해 많은 설렘과 은혜 속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향한 연합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한 기도회가 많은 사람을 수련회로 불러온 것 같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광야를 걷다'였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광야를 가지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를 만드신 이도,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이도, 광야에서 건져내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두셨을까? 그것은 나의 삶에 가득한 잡음들 사이로 오직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구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



주제 찬양인 '나의 가는 길'을 불렀을 때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라는 가사였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과 능력으로 연단하고 인도하심이었습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공동체의 끈끈한 연합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하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 장소에 우리를 '함께' 보내신 이유가 체감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조용히 그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한목소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순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짧은 1박 2일의 수련회였지만 저와 순원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모임 시간에 같이 나눔을 하면서 저마다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서로의 고난의 순간을 말하며 은혜의 조각들을 꺼내어 나눔 때 눈빛을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습니

다 함께 찬해줄 수 있는 시간이 순 초반에 마련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를 통해 광야 속에서도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광야가 세상의 어느 즐거움보다 달았습니다. 어둠과 같은 그곳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때,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알 때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기에 정말 기도하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울 한 해도 많은 광야가 저에게 스칠 것입니

다만 그때마다 저는 기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

## 청년부 목양1국 수련회를 소개합니다

2025년 2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청년부 목양1국은 '광야를 걷다'라는 주제로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청년부 개편 이후 목양 1국이 단독으로 준비한 첫 번째 수련회로,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청년들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학업과 취업,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훈련하시며 이끄시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조별 나눔과 기도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청년들의 광야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그 광야를 지나도록 은혜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이 광야에서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산 목양1국담당목사

## 교회 소식



### 교구 총회

일시: 4월13일(주일) 오후2시

장소

- 1교구: 초등부실(열린빌딩2층)
- 2교구: 청소년부실(열린빌딩1층)
- 3교구: 열린빌딩6층
- 4교구: 소년부실(열린빌딩2층)
- 5교구: 본관1층 예배실
- 6교구: 성지스타워드 지하1층 구내식당
- 7교구: 열린빌딩7층

### 2025 어린이 회심집회

#### 1. 어린이 회심집회를 위한 주바라봄기도회

일시: 4월14일(월)~19일(토) 오전5시30분

장소: 본관3층 예배실

(담임목사님 기도 인도시 회심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 2. 어린이 회심집회를 위한 교사·학부모 특별기도회

일시: 4월5일(토), 4월12일(토) 오전11시

장소: 소년부실(열린빌딩2층)

(자녀돌봄이 열린빌딩 지하1층 인조잔디구장에서 있습니다)

### 3. 회심집회

일시: 4월19일(토)

미취학부(영아·유아·유치): 오전10시~오후12시30분

취학부(유년·초등·소년): 오후3시~8시

장소

- 영아부: 영아부실(별관1층)
- 유아부: 4세-유년부실(세빛빌딩4층)
- 5세-유아부실(세빛빌딩2층)
- 유치부: 유치부실(세빛빌딩3층)
- 유년부: 유년부실(세빛빌딩4층)
- 초등부: 초등부실(열린빌딩2층)
- 소년부: 청소년부실(열린빌딩1층)

### 4. 학부모 기도회

날짜: 4월19일(토)

시간 및 장소

- 미취학부: 오전10시30분, 본관1층 예배실 (인도: 이성도 목사)
- 취학부: 오후6시 30분, 본관1층 예배실 (인도: 최성기 목사)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정년4교구)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 주요사역


- 3월31일(월)~4월20일(주일) 주바라봄기도회
- 3일(목) 목요일장인예배
- 13일(주일) (봄)교구총회
- 14일(월)~18일(금) (청년부)고난주간 '덜&더캠페인'
- 18일(금) 성금요일 특별기도회
- 19일(토) 어린이회심집회
- 20일(주일) 부활주일/성찬식/청년부회심집회
- 21일(월) 동서울노회
- 27일(주일) 장애인주일
- 27일(주일)~5월2일(금) 선교대회

부모기도회 소개

#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 나의 자녀만 위하지는 않는 기도



이경옥 다음세대사역위원회 학부모협력팀장  
eirene1116@naver.co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들! 그러나 현실은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 세대의 가르침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할 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많이 의지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부에서 청년부까지 1,600여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드려 기도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부모로서의 사명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교육과 가치관에 얽매어 있었던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기도회’를 준비하며 떠오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손잡고 함께 울 동역자가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갈 때 우리의 거룩한 움직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 믿고 이 길을 나아가려 합니다.

부모기도회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1년에 총 8회로 사랑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서별 기도와 함께 기독교 부모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지려 합니다.

부모기도회에서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독교학부모의 기도,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365일 참조).

- 자녀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
- 이 세대의 가정과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시간
- 여호와 경외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시간
-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시간
-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과 과정을 보는 시간
- 소명을 향하여 자녀와 함께 내딛는 시간
- 교육을 향한 시야를 넓히는 시간
- 하나님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

부모기도회와 함께 이후 기독교부모교실, 부모 교육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 등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리셋(reset)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부모로서의 정체성, 기독교적 교육관, 자녀 이해, 여호와 경외 교육, 성품 교육, 진로 교육 등 자녀 교육에 대한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리셋되며 회복(restore)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로, 함께 손잡고 함께 울 우리 모든 열린교회 부모님들을 부모기도회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

지난 3월 15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관1층 예배실에서 ‘함께 손잡고 함께 우는 우리는 기독교학부모입니다’라는 주제로 부모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월과 2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다음세대위원회 학부모협력팀 주관으로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3월 기도회에 참석한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편집부)

“청년부 엄마인데 사랑부, 영아부, 유아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육아할 때 어려웠던 기억이 나면서 육아에 힘든 엄마들의 고충을 새삼 알게 되어, 더 기도가 되어 감사했어요.”  
(1교구 학부모)

“이제껏 없었던, 부모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회라 또 은혜가 됩니다. 6월에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기도회도 기대가 되네요.”  
(2교구 학부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부모로서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쏟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들의 자녀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아요.”  
(7교구 학부모)

2025 특별새벽기도회

# 주바라봄 기도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특별새벽기도회에 초청합니다

3.31.(월)~4.20.(주일)

새벽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새가족

▶▶ 장년

- 김현정(98)
- 김태형(87)
- 박상하(90)
- 최지훈(74)
- 곽민정(79)
- 김권백(63)
- 김재임(68)
- 황윤정(76)
- 이성희(73)
- 조항은(93)
- 신은혜(97)
- 김희정(88)
- 김준혁(86)
- 이지선(89)
- 윤형주(86)
- 이미영(86)
- 이어진(91)
- 정명훈(89)
- 위미영(78)
- 김정훈(80)
- 차순조(73)

▶▶ 청년

- 박채연(03)
- 최민(01)
- 박지민(03)
- 김영현(02)
- 성민정(96)
- 이현희(99)
- 피요셉(88)



상담학교 후기

# 누가 마음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차영화 장년2교구  
icaleb@hanmail.net



제1기 상담학교가 시작되기 전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께서 낙상하셔서 거의 한 달을 입원해 계셨고 간병으로 인해 간신히 주일예배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5주간의 상담학교 중 3번을 참석하고, 한 주는 보내주신 녹화자료를 들었다.

그럼에도 '마음을 만나는 공동체 세우기'라는 주제로 열린 상담학교는 교회생활에서 특별한 시간이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역모임을 한 후, 구역장 공부까지 마치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상담학교는 체력적으로 부담되고 힘든 시간임에 틀림없지만 그런 힘들음을 상쇄하고도 남는 값진 것이 있었다.

2주 차 강의에서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며 대부분의 마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는 말이 와닿았다. 인간의 '핵심 욕구'와 '정신화'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인간의 핵심 욕구인 안전감, 돌봄, 수용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마음의 능력이 길러져 정신화 능력인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상태와 그 과정을 알아차리고 헤아리게 되며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했다.

내 마음의 빈 잔을 충분히 채웠을 때 비로소 바깥세상과 타인을 왜곡 없이 탐색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떠올랐다. 마음의 곳을 어느 누가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 양육자로부터 채워지 못한 마음의 빈 잔을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은 정신화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금도 나의 마음을 담아주신다.

3주 차 강의 '마음을 나누는 길'은 기독교상담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강의는 그 어떤 강의보다 특별했는데 그동안 상담에 대해 가졌던 편견,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이란 인간이 마음의 문제를 기술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편견이 무너지는 강의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때부터 관계 속에서 지으시고 부르실 때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나누며 다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

다는 것을 깨달았다.

4주 차 강의는 '마음이 아픈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었다. 우울, 불안, 중독, 성격 문제를 다루었다. 각각의 원인과 증상, 통제 및 방어와 사례를 다루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3시간 동안 알차게 이상심리의 개념을 들을 수 있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열어 주어서 좋았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원인과 증상에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5주 차 강의 '마음을 만나는 구역 인도법 배우기'는 실제 구역에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와도 같았다. 구역은 같이 성장하는 곳이고, 구역에서 마음을 많이 말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단순반응하기, 명료화, 재진술, 질문하기 등을 매우 따뜻하고 공감이가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역시 내용(content)보다 분위기(mood)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상담학교를 통해 좋은 강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솔한 삶과 신앙,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마음은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성령 안에서 영혼을 돌보는 방법은 먼저 기도로 시작된다는 말씀이 기억난다.

또한, 사람 관계는 혼자서 배울 수 없고 직접 부대끼고 서로 접촉하며 배우는 것인데 같은 삶의 정황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백, 고난을 통해 서로 모델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삶의 고백이 있는 곳이고, 살아보려 했는데 안 될 때 지혜를 구하고 나누는 곳이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작은 감정 신호를 알아채고 공감적 경청을 하는 등 마음을 나누는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 상담학교의 내용은 너무나 주옥같아서 다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

곰곰이 생각

## 기도하는 시간, 항구를 찾는 시간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기도는

풍랑을 만난 배가 항구를 찾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다양해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평안입니다.

배가 항구가 정박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3월의 어느 주일 설교를 들으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18)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직장인을 초대합니다

# 목요 직장인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낮 12시

장소 열린교회 3층 예배실

점심은  
열린교회가  
섬깁니다



2025

## 어린이회심집회

날 4월 19일(토)

시

미취학부(영아·유아·유치): 오전10시~오후12시30분

취학부(유년·초등·소년): 오후3시~8시

곳

열린교회 각 부서실

(4세유아부: 유년부실/소년부: 소년부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온 모태신앙인입니다. 할머니 때부터 4대째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은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일상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의 의무였고, 신앙은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세계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어머니와 누나를 따라간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익숙했던 예배와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찬양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그분의 은혜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확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제 삶의 중심에 찾아오셨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거치며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아내와의 만남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 봉사하는 일이 많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나'를 중요시하게 돼버렸습니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내에서 벌어진 갈등과 갈라짐, 중직자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접하며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교회의 외형적인 부분에 의존했던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둘 다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는 시점쯤, 가정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아내는 가정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집 근처의 새로운 교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열린교회로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아이들은 교회학교에 등록하며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기존 교회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예배만 드리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열린 교회의 교회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점차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딸은 초등학교 4학년임에도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친구들과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고백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져 갔습니다.

지난해 2월, 주바라봄기도회에 아내와 아이들이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출석스티커를 제출할 때,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소속이 정해지지 않은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하나님은 아시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담담한 웃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빛나 보일수록, 저는 제 안에 남아 있는 이기심과 책임을 미루려 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깊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계속 불평했고, 결국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가까이 부르신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신자 교육과 성장반 교육은 저를 신앙의 본질로 이끌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은 제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저는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제 신앙이 외적인 봉사에만 치중하던 결과, 그 사랑을 놓쳤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린교회는 우리 가정에 새로운 감동과 은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부임하신 김성진 목사님의 말씀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 감동은 제 삶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열린교회를 통해 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갑니다. 이 진리를 함께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박승훈 권세원 이혜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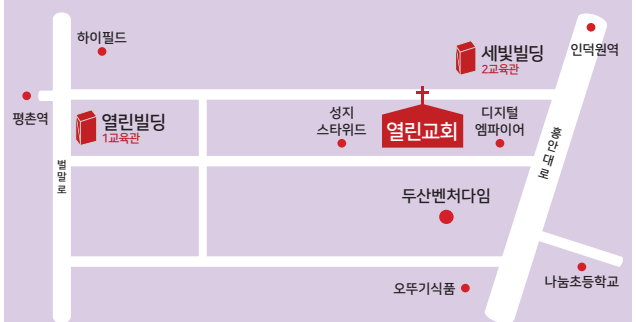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3층예배실)
	목요일장년예배	정오12시(본관3층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3층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3층예배실)
	화요일기도회	오전10시(본관1층예배실)
	수요일침묵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3층예배실)
	토요일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2층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1층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2층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2층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4층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3층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2층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1층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1층교육실1)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2층교육실4)	
외국인	중국팀	정오12시(세빛빌딩5층중국실) 中午12点(世光大厦5楼中文部)
백향목	봄·가을학기	금요일오전10시30분(본관1층예배실)
금요 테마학교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1층교육실1)
	취학부	오후8시(별관1층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오시면 됩니다